

Market Index / 29일

코스피지수 ▲ 2185.28 +8.56	코스닥지수 ▲ 670.18 +5.48	유가(WTI, 달러) ▲ 53.48 +0.34	감골 평균경락가(5kg, 원) ▼ 6.900 -900	환율(원) 1USD 1197.90 100¥ 1098.34	팔매 1156.70 1060.56	살매 1321.34 177.47	팔매 1269.78 160.57
--------------------------	-------------------------	------------------------------	----------------------------------	------------------------------------	-----------------------	----------------------	----------------------

제주 순이동 인구 끝내 감소세로...

통계청 '2019년 국내 인구이동' 동향 분석 결과
12월 기준 24명 감소... 8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지난해 고작 2936명 늘어... 2018년부터 급감세

이주 열풍이 불었던 제주지역의 순이동 인구가 8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국내 이주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 정착한 순이동 인구는 2936명으로 최근 연간 1만명 증가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12월 순이동 인구는 24명 줄며 2011년 12월 -12명을 기록한 이래 8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최근 3년간 12월 기준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는 2017년 1020명, 2018년 47명, 지난해 -24명이다. 2018년의 경우 7월까지 월평균 1000명대를 기록했지만 이후부터 200~700명대를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지난해 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호재로 이주 열풍이 불었던 최근 몇 년과는 달리 2010년 이전 타 지역 대학입학 등의 사유로 겨울철 인구유출이 이뤄졌던 것과 비

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향후 인구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총전입 인구는 9만5000명이고 총전출 인구는 9만2000명이다. 1년 간 불어난 제주인구는 3000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 10만4000명이 유입되고 9만5000명이 빠져나가며 순이동 인구 9000명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연령별 순이동자 수는 30대 1500명, 40대 1000명, 50대 700명, 0~9세 800명, 60세 이상 300명 등이 늘었고 대신 10대 -200명, 20대 -1000명을 각각 기록했다.
제주로의 전입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며 전출은 서울, 경기, 부산 순으

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인구이동은 항공편이 비교적 좋은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오가는 경향으로 파악됐다.
2018~19년 제주지역의 전입 사유별 순이동자 수는 직업 2500명, 자연환경 1900명, 주거환경 1000명인 반면 교육 -800명, 가족 -600명, 주택 -100명 등으로 상쇄현상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국제학교 설립, 제주관광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업 등에 따라 인구유입이 이뤄졌지만 최근 환경문제와 경쟁 심화로 이주 열풍이 줄었다"며 "2011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순유입 됐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순유출로 방향이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주간 재테크 핫 이슈 '우한 폐렴'과 대응 전략

주식투자 유연성 필요... 면세업 악재

구정 연휴 직전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사태는 연휴 기간 중 중국 내에서 확진 및 사망자수가 급증하면서 아직 휴장 중인 중국과 한국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2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환자 수는 4명으로 발생지인 중국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고 1차 감염이지만 조만간 2차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연휴가 끝난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주며 이날 코스피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초 증시가 상승하며 달아오르던 분위기를 꺾어버릴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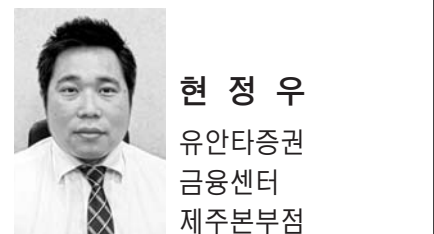
면세업체들의 경우 2017년부터 파이공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는데 현재 중국이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초반 파이공들의 활동 위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면세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6월 -42%, 7월 -57%, 8월 -38%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9월 -12%로 회복기에 접어들며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 되고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운송·유통·화장품 등 중국 소비관련주 악세

인터넷·통신·의약품 업종은 반사이익 기대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운송, 유통이 가장 불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운송은 지역 간 통제에, 유통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 급감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보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며 특히 회복기에 접어들더라도 시장 평균보다는 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높다. 반면 인터넷·통신, 의약품 업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부활동 제약이 생긴 만큼 활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터넷·통신 업종과 의약품의 경우에는 반사이익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최근 중국 사드 해빙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높았던 화장품 및 중국 소비관련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메르스 환자 발생 당시에 방한 중국인은 2015년 6~8월 기간 감소하였으며 특히 브랜드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 흐름

지 이어진다면 영향의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일시적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염병이 유행을 통과하게 되면 하락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주가는 하락 후 반등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우한 폐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예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유행 종료까지는 전염병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 이후 시장이 진정되며 낙폭이 확대된 업종으로 전환하는 유연성이 필요해 보인다.



현 정 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 200명 선착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9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부와 제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체결한 MOU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200명을 선정해 업체당 건강검진 비용 2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검진을 완료해야 하며 지정일 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비용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며,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양식은 제주소상공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검진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을 제외한 세밀한 건강검진에 필요한 MRI, CT, 초음파 등으로 구성됐다. 김경섭기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9일 메세나운동 일환으로 본부 갤러리에서 제18회 제주풍경 사진회를 개막했다. 사진=농협 제주본부 제공

제주농협 '나눔 메세나 전시회' 눈길

성이시돌복지의원 호스피스병동 1000만원 전달

제주농협이 나눔 메세나 전시회를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29일 본부 1층 NH심 갤러리에서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제18회 제주풍경 사진전시회 개막식을 가졌다. 개막식에는 홍중숙 성이시돌복지의원 원장, 김남식 제주사회복지공동 회장, 변대

근 제주농협본부장,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 김대현 제주농협 노조위원장, 강승표 농협은행 제주본부장 등 농협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말기 암 환자의 따뜻한 공간인 호스피스병동을 운영 중인 성이시돌복지의원을 위해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다. 김동광 청

년 사진작가 초대 제주풍경전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에 아름다운 제주풍경을 담은 작품 20점에 대한 판매가 이뤄지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성이시돌복지의원에 전달된다.
이날 제주농협은 제주사회복지공동회비를 통해 희망기금 1000만원을 성이시돌복지의원에 지정, 기탁했다.
제주농협은 제주메세나협회와 협약을 통해 일선 금융점포 공간활용을 통해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백명기기자 haru@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 잡초의 경감
- ▶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 높은 저장성
-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 강력한 라임효과
- ▶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향비료 **관주, 염변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745-8900, HP: 010-9258-7508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